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100周年標語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感謝の百年、希望の百年
(데살로니가전서 5:18)

福音新聞
THE GOSPEL NEWS

4月1日(火)〈2008年〉第664号
発行所 福音新聞社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電話03(3202)5398番
発行人 鄭然元・編集人 朴寿吉
毎月1回1日発行 購読料1部100円
昭和38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認可
印刷所・青丘文化社
Tel.047-495-2555 Fax.047-432-7912

総会宣教100周年記念
海外韓人教会 東京大会開催

在日大韓基督教会の宣教100周年を迎え海外韓人教会教育牧会協議会の6次大会を東京へ誘致し4月2日から4日まで開催した。

初日の2日午後7時から東京教会で「ハナニムが送られた場所で」(使徒1:8)と題しての説教による開会礼拝があった後、朴寿吉総幹事の基調報告と各地方会長の報告があった。

その後、各委員会委員長による九つの発題が行われた。発題のテーマはそれぞれ次の通りであった。「二百周年まで二百開拓教会運動」(朴珍烈宣教委員長)、「宣教百周年以降を眺める教育」(裵漢淑教育委員長)、「さらなる課題・使命に向けて」(金健社会委員長)、「新しい時代の教会観」(金武士神学考試委員長)、「教籍制度の提案」(金聖孝憲法委員長)、「会計各科目の問題と改善」(李光世財政委員長)、「次の世代のための教会」(金必順信徒委員長)、「これからの世代に向けて」(金信栄全国教会女性連合会長)、「宣教100周年記念事業に関して」(崔正剛宣教100周年記念事業実行委員長)。

質疑応答と全体討議(司会:李恵蘭牧師)では、次の点などが、今後討議を要する課題として挙げられた。

①無任所教役者の視務先を早く見つけるためのシステムの構築。

②開拓伝道支援期間の延長。

③新任教役者に対する、副教役者としての牧会上の訓練機会の増加。

④隠退教役者による開拓伝道の推進の可能性。

宣教会議でなされた提案については、参加者が各分野の担当者であることから、今後、各地方会の関連する部会や、総会の各委員会と各教会が深い討議と研究を重ね、「総会100周年記念宣教会議」の宣教政策課題として引き続き議論し、推進していきたい。

宣教会議は、崔栄信副総会長の「来日を準備せよ」(ヨシュア1:10〜18)と題しての説教による閉会礼拝をもって終了した。

なお、全体討議などを整理した「宣教100周年記念宣教会議」資料は、総会のホームページに掲載する予定である。

(報告:朴珍烈)

宣教百周年記念
宣教会議を開催
各委員長が発題を行う

総会宣教百周年記念宣教会議(主催:宣教委員会)が、4月1日、総会神学校にて開催された。参加者は、総会任員や各委員会委員長など27名であった。

鄭然元総会長の「地の果てに立っている人びと」と題しての説教による開会礼拝があった後、朴寿吉総幹事の基調報告と各地方会長の報告があった。

その後、各委員会委員長による九つの発題が行われた。発題のテーマはそれぞれ次の通りであった。「二百周年まで二百開拓教会運動」(朴珍烈宣教委員長)、「宣教百周年以降を眺める教育」(裵漢淑教育委員長)、「さらなる課題・使命に向けて」(金健社会委員長)、「新しい時代の教会観」(金武士神学考試委員長)、「教籍制度の提案」(金聖孝憲法委員長)、「会計各科目の問題と改善」(李光世財政委員長)、「次の世代のための教会」(金必順信徒委員長)、「これからの世代に向けて」(金信栄全国教会女性連合会長)、「宣教100周年記念事業に関して」(崔正剛宣教100周年記念事業実行委員長)。

質疑応答と全体討議(司会:李恵蘭牧師)では、次の点などが、今後討議を要する課題として挙げられた。

①無任所教役者の視務先を早く見つけるためのシステムの構築。

②開拓伝道支援期間の延長。

③新任教役者に対する、副教役者としての牧会上の訓練機会の増加。

④隠退教役者による開拓伝道の推進の可能性。

宣教会議でなされた提案については、参加者が各分野の担当者であることから、今後、各地方会の関連する部会や、総会の各委員会と各教会が深い討議と研究を重ね、「総会100周年記念宣教会議」の宣教政策課題として引き続き議論し、推進していきたい。

宣教会議は、崔栄信副総会長の「来日を準備せよ」(ヨシュア1:10〜18)と題しての説教による開会礼拝があった後、朴寿吉総幹事の基調報告と各地方会長の報告があった。

なお、全体討議などを整理した「宣教100周年記念宣教会議」資料は、総会のホームページに掲載する予定である。

(報告:朴珍烈)

第2回 常任委員会開催
宣教100周年センター 建立推進キロ

第49回 総会期 第2回 常任委員会が、去る4月2日 東京教会にて開催された。常任委員23名中、21名(RCA)が参席し、特別委員4名が参席した。

(1)美国改革教会(RCA)との宣教協約 推進を許諾する。

(2)福音新聞 未収金の損金処理をするために 決議事項は 次の通りである。

(3)定期総会にて 通過された 宣教100周年センター 建立推進委員会 構成する。

委員長:金漢範長老
委 員:金柄鎬牧師、韓聖炫牧師、李光世長老、金信栄勧士

(4)前 総幹事 姜栄一氏の解雇を 撤回する。

局長:崔栄信牧師
局員:朴珍烈牧師、金必順牧師、全三郎長老、李光世長老

(5)宣教100周年 副題と 宣教理念、大会宣言文を 採択する。

(6)讃頌歌委員会に 特別監査を 依頼する。

委員:金石水長老、姜遠基長老

(7)宣教100周年センター 建立推進委員会 構成する。

委員長:金漢範長老
委 員:金柄鎬牧師、韓聖炫牧師、李光世長老、金信栄勧士

(8)在日韓基総に 加入する。

聖地巡礼旅行 挙行
宣教100周年記念行事の 一環으로

今年 2008年、우리 在日大韓基督教会가 宣教100周年을 맞이하여 지난 2月18日(月)부터 29日(金)까지 総会長 鄭然元牧師를 비롯하여 本総会에 所属해 있는 牧師、長老、勧士、執事등 37名이 이스라엘을 中心으로 聖地巡礼를 다녀왔다.

이번 聖地巡礼는 2年前(2006年) 本総会에 所属해 있는 関西地方会 関西聖書神学院에서 터키 巡礼를 実施한 以後, 다음 巡礼地로서 이스라엘을 定한 것이 契機가 되어 今年度에 総会次元에서 100周年記念行事로서 開催된 것이다.

11泊12日의 日程으로 進行된 이번 聖地巡礼를 위해 大阪와 東京, 그리고 米国 등에서 함께 모였다. 具体的인 巡礼日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집트로부터 始作하여 출애굽路程인 고센 땅을 기쳐 未明時間에 모세가 10誡命을 받은 시내산 頂上에 올라 그곳에서 해돋이를 맞이하기도 했다. 그 後, 요르단의 암만과 페트라를 経由해 이스라엘에 入国하여 예수님께서 주로 活動하셨던 갈릴리와 예루살렘 성전자리(지금은 이슬람교에서 관리하는 황금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등을 돌아보았다.

特히, 四旬節期間 이번 巡礼 여정에서 印象깊었고 参加者들이 무엇보다도 感動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公生涯를 마치시고 마지막 걸어가신 「十字架의 길」, 즉 総督 빌라도로부터 死刑언도를 받고 十字架를 지시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서 十字架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의 苦難의 발자취를 함께 걷는 体験을 했다는 것이다.

이번 聖地巡礼에 参与한 参加者들이 대부분 처음 体験하는 聖地巡礼의 길이었기에 남다른 感動과 有益한 時間을 보낸 것은 무엇보다도 感謝한 일이다.

聖地巡礼 팀은 마지막 巡礼場所인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最後의 晩餐」 壁画의 原本을 観賞한 後, 아쉬운 聖地巡礼의 길을 마무리 했다.

이번 聖地巡礼를 다녀오면서 現在 팔레스타인의 複雑한 宗教的, 政治的 状況을 조금이나마 理解하게 된 것과 世界平和를 위해 유대교와 이슬람교, 基督教의 宗教的인 対話와 寛容이 必要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좋은 契機가 되었다. 同時에 앞으로 中東地域이 宗教的, 政治的인 葛藤이나 戦争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平和(샬롬)의 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기를 祈禱한다.

(報告:趙永哲)

説教

信仰은 習慣을 지니는 것

李明信（山形우리教会牧師）

《엡4:17-32》

聖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워진 存在라고 말합니다。우리의 內的인 存在가 새로워졌다고 말합니다。本文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안에서 変化된 삶을 살라고 勸勉하는 말씀입니다。이제 예수를 믿고 信仰人으로 教会內에 들어왔으면 새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예전에 세상에서 하던 나쁜 버릇은 모조리 清算해야 합니다。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은 벗어 던지고 새사람으로 갈아 입어야 합니다。

本文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먼저 17~24節에서 예수 안에서 새사람이 되었다는 事実을 宣言합니다。그 다음 25~32節에서는 이같이 예수 안에서 새사람이 되었을 때 具体的으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倫理的인 指針을 提示해 주고 있습니다。먼저 17~24節에서 重要한 것은 예수를 몰랐을 때의 옛적의 삶과 예수를 안 지금의 삶이 달라져야만 한다는 事実입니다。예적의 삶을 에베소서 4章 17~19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証拠하노니 이제부터는 異邦人이 그 마음의 虛妄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聡明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無知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生命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感覚없는 자가 되어 自身을 放蕩에 放任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欲慕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옷을 벗고 입는다"는 比喩는 바울 神学에 있어서 항상 洗礼와 関連되어 있습니다。에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洗礼받은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옛自我는 十字架에 못박혀 죽고 그리스도의 復活과 더불어 새自我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새사람은 具体的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25~32節은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生活의 具体的인 規範을 提示하고 있습니다。예수를 알기 前 예전의 삶이 나쁜 버릇의 支配를 받았다면 예수를 안 뒤 새로운 삶은 새로운 習慣으로 변해야 합니다。여기 25~32節을 보면 크게 세 가지 領域에 있어서 우리의 習慣이 변해야 합니다。言語와 感情과 行為입니다。

우리의 言語는 우리의 人格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한 사람의 人品은 그가 쓰는 言語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25節과 29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肢体가 됨이니라。」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德을 세우는 데 所用되는 대로 善한 말을 하여 듣는 者들에게 恩惠를 끼치게 하라。」 말을 할 때에는 듣는 사람에게 德을 세우고 恩惠가 되는 말만 골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感情도 버릇입니다。자꾸 否定的이고 슬픔 感情을 지니고 살다보면 습관이 됩니다。우리의 생각이나 言語가 다 習慣의 問題인데 感情 역시 習慣의 支配를 받습니다。感情도 習慣의 支配를 받는다면 우리의 確固한 意志와 기도로 좋은 感情, 거룩한 感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26節과 31節을 보면, 「분을 내어도 罪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살다보면 화를 안내고 살기는 어렵겠습니다。그러나 죄를 지을 정도로 화를 내거나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重要한 것은 우리의 內的인 価値의 習慣입니다。삶의 価値의 転換이야말로 信仰人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저는 聖書을 읽으며 놀라운 事実에 눈을 떴습니다。사람들은 그렇게 成功을 願하는데, 聖書는 人間의 成功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事実입니다。聖書가 一貫되게 提示하는 가장 重要한 德目은 誠実이라는 事実입니다。이 事実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잘 나타나 있습니다。聖書에 나오는 人物中에서 요셉은 가장 成功한 사람中 하나이며, 따라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成功의 秘訣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自身에게 주어지는 일에 全心을 다하고 真実했던 사람입니다。그가 偉大한 理由는 삶의 紆余曲折에도 불구하고 "誠実"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그 態度가 結局 그를 이집트의 総理로 만든 것입니다。그는 보디발의 집에 奴隷로 팔려갔을 때에도 奴隷의 일에 誠実했습니다。主人의 夫人이 그를 誘惑했지만 자신을 믿어준 主人을 背信할 수 없었습니다。또한 奴隷로서 自身의 身分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에 그는 그 誘惑을 뿌리쳤고, 결국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監獄에 떨어졌을 때, 그도 사람인 이상 어찌 낙심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금새 마음을 수습하여 자신이 처한 状況에 誠実했습니다。더 이상 아무런 希望이 없어 보이는 状況에 떨어졌지만, 그는 自身에게 주어지는 일에 誠実했습니다。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여도, 그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그로 인해 看守들의 信任을 얻게 되었습니다。마침내 総理가 되었을 때, 그는 「아, 내가 드디어 成功을 이루었다!」고 만세 부르지 않았습니다。바로 그런 까닭에 聖書에서는 「成功하라!」고 말하지 않고, 「誠実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復活하신 主님은 우리에게 다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내 안에 거하라。내가 주는 삶의 価値로 살아보아라」 믿음의 종은 習慣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栄光이 드러나고, 教会의 德을 세우고, 그리스도만이 主人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란 새로운 삶에 있고, 새로운 삶은 習慣을 이루는 데 있고, 가장 核心的인 価値는 믿음의 誠実입니다。거기에 永生이 있습니다。

칼럼

우리 教会에 어서 오세요!

<13> 平野教会

1、教会設立経過

1947年度에 大阪教会 平野区域 集会가 始作되어 大阪府八尾市龍華町竹淵334番地 裵貴乭勧察宅에서 礼拝를 보았으며 区域礼拝 引道者는 丁仁寿 長老와 李玉礼執事（丁信子의 母親）가 担当하였고、1947年8月31日에 伝道所의 開設礼拝를 挙行하였습니다。当時의 大阪教会의 堂会長은 朴命俊牧師였습니다。礼拝処는 裵貴乭勧察宅이었고 1949年에 그 집을 買入하여 教会로 始作하였습니다。그 후 1951年10月10日 第7回総会에서 独立教会로 承認받았습니다。

2、宣教60周年까지

初代 丁仁寿牧師의 牧会 30周年을 통하여 平野教会의 開拓伝道로부터 創立30周年記念礼拝에 이르기까지 第1代 朴根済長老、第2代 閔重三長老、第3代 辺万柱長老가 将立되었고、洗礼教人 62名、教会学校 学生 55名、男女執事가 16名、堂会員 4名으로 成長하였습니다。1983年4月17日에는 第2代 金安弘牧師의 委任式과 丁仁寿牧師의 元老牧師 推戴式과 세 분의 長老에게 隠退長老表彰을 하고、周会善執事가 名誉執事로 推戴되고、朴玉蘭執事와 諸甲礼執事가 表彰을 받았습니다。

1985年에는 第4代 朴善喜長老가 将立받아 奉仕하게 되고、새 教会堂을 建築하기 위하여 온 聖徒가 熱心히 献金을 하여 37年間 借用하여 온 教会敷地를 買入하였습니다。그 후 教会建築을 推進하던 金安弘牧師는 総会 総務로 転任하였습니다。

1990年8月 第3代 趙載国牧師가 赴任한 후 第5代 閔貞愛長老、殷康世長老가 将立받았습니다。1997年5月에는 第4代 朴珍烈牧師가 赴任하고 同時에 第6代 丁基隆長老 就任하였습니다。

3、現在의 教会의 活動

洗礼教人 42名、長期欠席（別帳）19名、求道者 12名의 教勢이며、牧師 1名、長老男女各1名、名誉執事 5名、署理執事16名으로 諸職会를 構成하고 있습니다。教会学校 教師4名 学生 7名、女性会員 15名、青年 5名으로 平均出席数는 週間 60名이며 予算은 800万円입니다。早天祈祷会를 毎日 드리며 主日 午前礼拝와 午後2時礼拝에 韓日語를 같이 使用하여 説教하고 있습니다。主日礼拝聖歌隊의 熱心있는 讃揚과 70才以上의 名誉執事로 構成된 平和聖歌隊는 午後礼拝의 讃美、聖句暗唱으로 奉仕합니다。毎週火曜日午後7時부터 9時30分까지 한글 教室는 金永元執事가 担当하여 日本人 6名이 배우고 있습니다。教人으로 登録된 2名 外에도 救援者가 나오도록 祈祷하고 있습니다。

女性会員들의 맡은 点心食事는 主日 当番이 奉仕하고 있습니다。夏期短期宣教団을 받아 함께 伝道하고 있으며 地域伝道를 위한 바자와 聖誕캐롤을 毎年 実施하고 있습니다。新教会入堂한 2年前부터 毎主日에 聖経과 讃頌은 물론 毎週 새로운 映像으로 礼拝드리고 있습니다。

4、将来의 教会의 비전

宣教하는 対象은 在日同胞인데 子女孫의 信仰継承이 第一 큰 課題이므로 幼稚部로부터 壮年部에 이르기까지 聖書教育을 徹底히 하여 家族을 救援받게 하는 일이다。老齢化、個人化되어가는 現代社会에서 家庭을 福音化하는 것이 重要합니다。우리 教会의 祈祷課題는 모든 家庭의 家族을 救援받게 主께 祈祷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幸福하십시오。

不動産管理
アルカンシェル名駅
李 光世
（名古屋教会 長老）
〒453-0013 名古屋市中村区亀島2-2-27
電話・FAX 052-451-7713
携 帯 090-3578-7571
E-mail:kwangse.lee@nifty.com

医療法人
おりお心和クリニック
院長 金 長壽
（福岡中央教会 長老）
診療科目：神経科 精神科 心療内科
精神保健相談 酒害相談
診療所：〒807-0825 北九州市八幡西区折尾4-2-8
TEL（093）603-3280
FAX（093）603-7985
自 宅：〒813-0003 福岡市東区香住ヶ丘1-14-8
TEL・FAX（092）672-9410

株式会社 ニューキング
有限会社 三 愛
取締役社長 李 鍾善
（名古屋教会 長老）
ニューキング 四日市市野田1丁目965−1
TEL（0593）31−4771㈹
三 愛 岡崎市大和町字荒田14−1
TEL（0564）31−8893㈹

全国女性連合会

女性の聖書セミナー開催

2月19～20日、京都アピカルインホテルにて、全国から77名が参加し、「第9回女性の聖書セミナー」が開催された。開会礼拝では、金智一牧師（大阪）が、「自分を越える力」（ルカ10：25～37）との題目による説教を行った。

セミナーは、昨年に引き続き金必順牧師（全国女性会総務）を講師とし、エステル記をもとに、主題「私が主人公のエステル物語」、副題「神・人・共同体のダイナミックなつながり」による講演がなされた。

基調講演と二回に分けての主題講演は、男女平等の世界順位をはじめ、長い歴史の中で刷り込まれてきた女性の立場の実状や、女性がキリスト・イエスによって解放された自由人として、与えられた生を豊かに生きることのできる存在であることなどを学んだ。

交流会では、関東地方女性会が衣装まで揃えて準備した寸劇「エステル物語」が披露され、楽しい一時をもった。

また、6班に分かれての分団討議では、「もし、エステル記11章を書くならば、どのような物語になるだろうか」ということをめぐって話し合われ、分団発表では各分団の個性溢れる「エステル記その後」についての発表がなされた。

女性リーダー養成のために9年前から始まった聖書セミナーであるが、昨年からは、聴くだけの講演会ではなく、参加型のセミナーとなっている。

閉会礼拝では、朴洙美伝道師（名古屋）による、「積極・活動性より、あきらめない信仰」（マタイ9：20～21）と題しての説教がなされ、セミナーを終えた。

（報告：崔金順）

関西地方会女性部

「迫害を生きたキリスト者――足跡をたどる旅」に参加して

崔　吉　子（関西地方会女性部）

関西地方会女性部は、07年12月13日に「尹東柱と田永福」について、金必順全国女性会総務をガイド役に迎えて実施された。尹東柱は、日帝時代に治安維持法の嫌疑によって逮捕され、福岡刑務所で夭逝したキリスト者詩人である。田永福（本名：織田楠次）は、日本人でありながら、韓国人への伝道に人生のすべてをささげた牧師である。1948年には京都教会の牧師に就任し、生涯を通して小さく弱くされた者の側に立って、私たちの総会で「宣教百周年リバイバル――迫害を受けたキリスト者」との主題のもと、この2年間の活動を行ってきた。

まず、2回の学習会をもった。第1回目は、2007年1月24日に行われた第2回目の学習会は、テーマが「キリシタン禁制から3百年、キリシタンの苦難の足跡をたどる」で、ガイド役は林芳子長老であった。宣教師フランシスコ・ザビエルに始まる日本のキリスト教は、3百年もの弾圧を受けた。明治時代には鎖国は解かれたものの、弾圧はなお続いた。多くの資料を駆使して紹介された話は、今からそう遠くない近代のキリシタンの人びとのことである。

これら2回の学習会を踏まえ、時を受難週にあわせた3月14日、京都・茨木方面に「足跡をたどる旅」に出発した。天気はあいにくの雨模様であったが、参加者は50名であった。

バスで、まず茨木市立「キリシタン遺物資料館」へ向かった。資料館は、山の南斜面に立つ小さな平屋の洋館で、キリシタンの家から発見された展示品を鑑賞し、遺品発見の過程を収めたビデオを観賞した。大阪市内からさほど遠くないこの地に、「ご禁制」のキリシタンが信仰を守りついできたことに思いを馳せた。

その後、京都教会を訪問し、教会の歴史と田永福牧師についての話を聞いた。そして、同志社へと急いだ。尹東柱の詩碑は、同志社のキャンパス内にひっそりと立つ。詩碑の前で、尹東柱の詩を韓国語と日本語で朗読した。その最中、雨が強く降りだしたが、参加者一同、思いを込めて讃頌歌を歌った。清らかな魂と感性したたる詩は彼の死後に世に出され、彼は韓国で「愛される詩人」として最高の評価を得ている。

最後に、重要文化財となっている同志社のチャペル見学が許された。礼拝堂内部は装飾がほとんど施されておらず、壁面上部にはステンドグラスの美しさが際立ち、椅子は整然と並べられ、築百数年にもなる歴史を感じさせた。かつて、詩人尹東柱はこの椅子に座り、何を考え、何を祈ったであろうか。「御霊よ、安かれ」と祈りつつ、帰途についた。

会校 総神学

卒業式・入学式を行う

今年度は3名が卒業

3月11日、総会神学校の卒業式・08年度入学式および新校舎竣工感謝礼拝が同神学校において行われた。

礼拝では、李激奘牧師の司会のもと、鄭然元総会長による説教があった後、李聖雨校長が、今回卒業し、伝道者となる3名への卒業証書授与と勧勉を行った。

また、金漢範理事長による激励・歓迎辞、金柄鎬牧師による神学校校舎の工事経過報告、朴寿吉総幹事、関東地方会の洪性完会長、全国教会女性連合会の金信栄会長の祝辞があった後、金君植牧師の祝祷をもって終えた。

今回、内装工事が終了した新校舎は建坪約130坪に、教室、図書室、食堂、教務室、学生用の部屋、ゲストルーム、多目的室、シャワー室などを完備している。新校舎は、総会百周年を記念した事業であり、新校舎を得た神学校の、よき働き人育成のための今後の役割が期待される。

関西聖書神学院が卒業式

1名が卒業し、4名が修了

2007年度の関西聖書神学院卒業式が、3月16日、本校舎（大阪北部教会）で行われた。

卒業礼拝では、教務の趙永哲牧師（大阪北部）の司会のもと、新約神学教授の金武士牧師（大阪西成）の祈り、大阪北部教会聖歌隊による特別讃美、神学院院長の鄭然元牧師（大阪）の「神さまが捜される人」と題したメッセージがあった。その後、鄭然元牧師による卒業証書授与と関西地方会副会長の金永煥長老（大阪）による祝辞があり、最後に理事長の全聖三牧師（布施）の祝祷で卒業礼拝が終わった。

今年、卒業・修了した神学生は、本科卒業生1名と研究科修了者4名の計5名であった。

関西聖書神学院は、在日大韓基督教会で働く人材養成や、教会奉仕のための信徒教育と訓練、神学形成などを目的に1984年に関西地方会を中心に設立されて以来、今日にいたっている。

（報告：趙永哲）

李大京牧師が召天

船橋教会にて告別式を行う

関西地方会の隠退牧師である李大京牧師が、3月14日、天に召された。享年75歳であった。前夜式および告別式は、趙重来牧師の司式で船橋教会にて行われた。前夜式では、申鉉錫牧師が「完走者」（Ⅱテモテ4：1～8）と題して説教した後、金太休長老による弔辞と慶恵重牧師による祝祷があった。

告別式では、金君植牧師による「イエスの焼印」（ガラテヤ6：17）と題する説教があった後、趙鳳済長老による弔辞と趙重来牧師による祝祷があった。

李大京牧師は、1932年に済州島にて出生。東京神学大学大学院を卒業した後、東京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を修了。74年に牧師按手を受けた後、西新井教会、船橋教会、京都南部教会などで視務した。また、総会総務（85～89年）や総会長（95～97年）を歴任した。遺家族には、吉莫来師母と三女一男がいる。

♥真心をこめて出会いから結婚まで♥
芦屋ルツ結婚相談所
代表者　崔　貞　淑
（神戸東部教会勧士）
"すてきなクリスチャンの男性がクリスチャンの女性をさがしています。"
お気軽にお電話ください。
TEL（0797）34-6814
FAX（0797）38-6868

YMCA 在日同胞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
2006年4月25日、創立100周年を迎えました。
◆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ホテル）：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サービス。10名様から220名様の会議及び宿泊研修（50名様）も可能。
◆スペースワイホール：22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最適
◆韓国文化（チャング・カヤグム・舞踊）教室・韓国語講座・各種こどもクラス
◆YMCAアジア語学院（日本語学校）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

（税込）	平日	休・休前日
シングル	¥6,300	¥5,040
ツイン	¥11,550	¥9,240
トリプル	¥14,490	¥11,592

朝食¥200　カルビクッパ、コムタン、ユッケジャン、韓定食、洋食（全メニューコーヒー付き）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楽町2-5-5 TEL 03-3233-0611 FAX 03-3233-0633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TEL 06-6981-0781 FAX 06-6981-0782

宣教師・神学生研修会開催

合同教会としての特性と多様性を学ぶ

「宣教師・総会神学生研修会」が、3月3～8日、集中講座も兼ねながら、新しく完成した総会神学校および関東地方の諸教会で開催された。今回は、加入宣教師3名、総会神学生17名の計20名の参加があり、関東地方会の教役者たちの協力をえて、有意義な研修の時をもった。

研修会では、「在日同胞史」（李根秀牧師）、「KCCJの歴史と神学」（朴寿吉総幹事）、「総会憲法」（鄭然元総会長）に関する集中講義があった後、車3台に分乗して、関東地方会の各教会（東京、東京中央、品川、ハンサラン、東京日暮里、東京調布、仙台、山形ウリ、日立教会）を訪問した。そして、最終日には足立区にある在日同胞を対象にしたデイサービス施設を見学した。

研修後は神学生たちも互いに親密さが増し、それぞれが遣わされた教会で熱心に奉仕することを誓い合いながら、各地に帰っていった。

今回の研修会は、出身神学校や韓国での出身教団の違いを超えて、在日大韓基督教会に所属する者としての宣教使命の一致を確認すると共に、合同教会としての在日大韓基督教会の特性と多様性を学ぶ貴重な時間となった。

（報告：韓聖炫）

川庫会 武教部 春の伝道集会を開催

西部地方壮年会定期大会も同時に

3月15～16日、武庫川教会の春の伝道集会と第18回西部地方会壮年会定期大会が、講師に春名康範牧師（大阪水上隣保館・キリスト教社会福祉専門学校校長）を迎え、武庫川教会で同時に開催された。春名牧師は漫画家でもあり、また青年をキリスト教に導く多数の著作でも高名な方である。

春名牧師からは、武庫川教会の青年のための伝道集会として、「人生にイエスを」（コロサイ3：12～17）、「主の山に備えあり」（創22：1～18）、「人生一歩先は光」（Ⅱコリント4：1～6）の三回のメッセージが伝えられた。その中で、「イエスは私たちが苦しい時には、いつも共にいてくださり、苦しみも共に受けてくださる。苦しい時には必要なものをすべて備えてくださる。厳しくかつ慈愛に満ち溢れたお方である」ということがやさしく、また力強く語られた。

青年や会衆一同の心の奥深くまで染み通る解き明かしであった。最後の説教は、西部地方会壮年会定期大会の開会礼拝を兼ねてなされた。

引き続き行われた壮年会定期大会では、活動報告と共に役員改選が行われた。新役員として会長に尹聖哲（神戸）、副会長に姜勝文（武庫川）、書記に李武信（神戸）、会計に金吉秀（神戸東部）が選出された。

和やかな懇親の時間をもった後、閉会となった。この二日間を通して各自が学び、反省し、そして考え、明日からの信仰生活を再出発することを誓い、家路についた。

（報告：林英宰）

中部地方女性部会 一日研修会を開催

礼拝について学び、陶芸教室も開く

中部地方教会女性連合会では、青年部が中心となり、2月26日、名古屋教会にて一日研修会が行われた。

一日研修会は、一部と二部構成で行われ、一部では、「わたしたちのささげる真の礼拝」というテーマのもと、宋福姫青年部長（名古屋）の司会と朴恵慶会長（名古屋）の祈りにより開会礼拝をささげた後、朴太元牧師（豊橋）による聖書研究（創世記8：20～22）が行われた。

聖書研究で学んだことは、「礼拝とは何か」「礼拝の起源」「礼拝に必要なもの」などであった。朴牧師は、「礼拝とは、神さまに供え物をささげて敬意を示すことであり、礼拝の重心は御言葉なので、聞くことが大事である」と述べた。また、礼拝に必要なものとして、①存在の確認、②交わり、③時の聖化が挙げられる中、礼拝場所に自分がいることの大切さや、とりなしの祈りなどが交わりの一つであること、礼拝はその時間を大事にしながらささげられるべきことなどを学んだ。

二部の陶芸教室には、「主は陶工、わたしたちは粘土」（イザヤ64：8）の御言葉に示されているように、イエス・キリストの限りない愛に相応しい器になることを目指しながら、26名が参加した。陶芸の指導は、名古屋芸術大学講師の金云錫執事（名古屋）が行った。

ある教会の女性信徒たちは、自分たちの教会の献花用の花瓶を心合わせて作るなど、良い交わりの時となった。

今回の一日研修会は、私たちがどのような姿勢で礼拝をささげるべきかについて改めて悟らせてくれる、たいへん恵み深い研修会であった。

（報告：宋福姫）

福音新聞休刊のお知らせ

『福音新聞』5月号を休刊いたします。

「宣教百周年記念 各地方会教会学校教師研修会」

■今年は、私たち在日大韓基督教会が宣教百周年を迎えます。日曜学校（主日学校）は、私たちの教会と共に始まりました。また、日本で日曜学校が始まってから143年がたちます。

■日曜学校の歴史は、教会が「子ども」や「社会」とどう関わってきたかという教会の歴史です。

■DVD『教会教育の歩み―日曜学校から始まるキリスト教教育史』を見ながら、共に日曜学校の歴史を旅してみませんか?

■制作を担当したNCC教育部の大島果織総幹事が講師として、わかりやすく説明してくださいます。

■教育委員会では、各地方会の教育部と協力して「教会学校教師研修会」を開催します。教会学校教師以外の方も大歓迎です。ぜひ共に学びあいましょう!

教育委員長：裵漢淑牧師

関東地方（部長:黄貞順牧師） 日時：5月11日（日） 場所：東京教会	**中部地方**（部長:朴太元牧師） 日時：6月29日（日） 場所：名古屋教会
関西地方（部長:金永柱牧師） 日時：6月8日（日） 場所：KCC	**西南地方**（部長:金聖孝牧師） 日時：5月25日（日） 場所：福岡教会

※日時が変更する場合はご了承ください。

※お問い合わせは、教育主事（呉寿恵）へ
06－6971－5848（自宅）・090－1155－1735（携帯）

歴史コラム⑦⓪

戦後の在日大韓基督教会のリーダーたち(4) 朴命俊牧師

李　清一（歴史編纂委員会）

在日大韓基督教会の戦後の出発点となる「在日本朝鮮基督教連合会」の創立総会（1945年11月15日）の開会礼拝説教を担当したのは、朴命俊牧師であった。そして、この創立総会において、朴牧師は総務に選出されている。その後、1946年から60年までの間、3年間を除く12年にわたって副総会長を歴任したほか、62年には総会長に選出されている。また、77年までの間に、武取局長（2回）、伝道局長（1回）、婦女局長（5回）、伝道局員に選出されると共に、50年4月の関東地方会設立時には地方会会長に選出され、総会および地方会の発展に長年にわたって大きく貢献した。

朴命俊牧師の当時の所属教会であった日本基督教団瀬戸教会から、創立総会に向けて提出された「教会状況報告」によれば、教会の主管者・視務者は朴命俊、役員は長老5人、執事3人、会員数は男女60人であり、戦後の混乱期にあっても多数の教会員が集っていた教会であったことがわかる。

朴命俊牧師は、1912年9月、慶尚北道義城郡に生まれた。25年、故郷の孝仙小学校を卒業した頃、母親が通っていた孝仙教会で学習を受け、キリスト教に入信した。15歳の時（27年）、おじの李相龍氏（後に豊橋教会長老）と共に生活の活路を求めて豊橋に渡った。豊橋で働きながら、日曜日には、伝道が開始されたばかりの伝道所の礼拝に熱心に出席し、28年10月に豊橋八町教会で受洗した。（45年8月15日）を迎えた。その間の35年には、同郷の金命祚氏と結婚し、2男5女に恵まれた。その家庭では、朝夕の家庭礼拝が欠かさずに守られたという。

戦後、朴命俊牧師は、1946年から2年間、大阪教会で視務し、神戸、川西、南方、武庫川、西成、関目などの巡回牧会にも励んだ。48年から59年12月までは大垣教会で視務し、57年には教会堂と牧師館を新築している。また、岐阜教会での開拓伝道に着手した。この当時の牧会を思い起こしながら、朴命俊牧師は晩年の病床にあった頃、家族に次のようなエピソードを話している。

「日中戦争で両眼と左足をなくした日本人が帰日団瀬戸教会に赴任し、解放し、岐阜で生活していたが三度も自殺を計った。この時生きる希望を見失ったこの人を朴牧師が訪ね、対話を重ねる中で、この人が福音を受けとめ、幸せな結婚生活を送るようになった。また父母と他の宗教を信じていた弟までもクリスチャンになった」（『福音新聞』86年5月15日号）。

その後、朴牧師は、1959年12月から70年7月まで11年間にわたって名古屋教会において視務している。その間、静岡、浜松、岡崎、豊橋、金沢、福井、そして桑名において伝道活動を展開し、その後、岐阜に転居し、桑名を中心に三重県一帯で8年間牧会した。その中で、桑名伝道所を開設した。このように、朴命俊牧師は、伝道師・牧師時代の38年間、絶え間なく伝道に励み、在日大韓基督教会の基礎を築いた。

朴命俊牧師は、1985年9月18日に天に召された。享年73歳であった。告別式は岐阜教会において中部地方会葬として挙行された。説教者は、長年にわたり労苦を共にしてきた呉允台牧師で、説教題目は「聖徒の復活」であった。

次男の朴憲郁牧師（東京神学大学教授）は、父親について、「父は名古屋教会視務の間、機会あるごとに名古屋民団本部・支部の記念集会などに出席し、講演や祝辞を通して同胞愛と民族精神を説き、在日同胞との親交があった。しかも、それが信仰と伝道の精神と不可分であった」と述懐している。